강경남 소장에게 듣는 중국사무소

대륙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KITECH의 미래를 밝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총 4개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외사무소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생기원 본연의 미션은 물론, 국내 기업과 우리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먼 타국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벗이 돼주고 있는 해외사무소 마지막 이야기, 중국사무소 강경남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중국사무소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기원 중국사무소는 지난 2004년 중국 산동성 청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이곳 청도는 한국 진출기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약 10,000여 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원부자재 수급 등의 이유와 더불어 한국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선족들이 많아 언어의 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이 이곳 청도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배경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기업들이 청도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죠. 이에 중국정부는 세제혜택이나 무상토지임대 등의 지원을 해주었으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기원은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을 통해 청도시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중국사무소가 설립된 것입니다.

2. 중국사무소의 중점 추진사업은?

중국사무소를 포함한 해외사무소들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생기원 미션을 똑같이 수행하되 지역적 영역을 해외로 넓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화하는 데 해외사무소가 일조를 하고 있죠. 중국사무소가 추진 중인 사업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연구진을 매칭시켜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돕고 있죠. 두 번째는 현지 실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기업에 기술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지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술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화 과제로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